

한·핀란드 정상 공동 기자회견

지식경제시대의 선도국가인 핀란드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방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두 나라가 1973년 수교 이후 괄목할 만한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오늘 정상회담은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양국이 다방면에서 협력을 확대할 여지가 많다는 것을 확인하고, 실질협력 강화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로넨 대통령과 저는 양국이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 과학기술, 물류 분야 등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IT 첨단기술 개발, 전자정부 구축 등 정보통신 분야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국제공동연구개발 참여, 대덕연구개발 특구와 핀란드의 ‘오타니에미’, ‘오울루’ 같은 혁신클러스터 간의 유기적인 연대 구축 등 과학기술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핀란드 간 직항 취항 추진 등을 계기로 인적·물적 교류를 더욱 확

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개최되는 ‘한-핀 과학기술포럼’ 과 ‘민간경제협력위원회 회의’, ‘한국 상품전시회’ 등이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와 과학기술 분야 협력 증진에 유익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등 양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경험 공유와 정책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할로넨 대통령과 저는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방안을 협의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동북아는 물론 세계 평화에 긴요하며,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끝으로, 핀란드가 EU의장국으로서 ASEM 정상회의 주최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 간의 관계를 한층 발전시키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며, 저와 우리 일행을 환대해 주신 할로넨 대통령과 핀란드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핀란드 측 기자 : 동아시아의 북한 문제 외에 최대 의제는 무엇인가?

○ 지금 당장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동북아에서 EU와 같은 대화 협력 신뢰, 공동체를 지향하는 정치적 기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문제를 더 어둡게 볼 수 있는 소지가 있고, EU 같은 협력 틀이 없는데 그치지 않고 EU 같은 방향을 모색할 때 강력한 장애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 역사 문제입니다. 과거 역사에 대해 국가 간 국민 간, 상호간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유럽과 동북아시아를 비교하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핀란드 측 기자 : 북한 핵실험에 대해 중국과 미국이 경고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북한은 또 다른 도발 행위가 있을 위험성은?

○ 핵 실험 얘기를 하기 전에 미사일 문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지요.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 실험 발사를 했습니다만, 그 미사일이 미국까지 가기에 너무 초라한 것이고 한국을 향해 쏘기에는 너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미사일을 실제 무력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발사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치적 목적에 의한 정치적 행동으로 보지 않고, 실제 무력적 위협으로 보는 언론이 더 많다는 것이 나는 문제를 어렵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도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핵무기는 미사일과는 수준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핵무기가 미사일과 마찬가지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핵실험에 관해서 아무런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고, 핵실험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단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거 없이 계속 가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 사람을 불안하게 할뿐더러 또 남북관계도 해롭게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